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436장 ..... 다같이

1.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세 사람이라도  
그 생명 내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 주 안에 감추인 새생명 얻으니 이전에 즐던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함께 살리라
3.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맘 새 하늘이로다
4.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후렴) 영생을 누리며 주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함께 살리라

### 기 도 ..... 가족 중

### 성경봉독 ..... 요한복음 21장 15-22절 ..... 인도자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 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 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 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 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물던 자더라
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 설 교 ..... “예수님의 요청” ..... 인도자

###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1.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7월 되게 하옵소서. 2. 꿈의 정원과 청년부에게 은혜로운 여름을 주옵소서.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 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 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예수님의 요청

요한복음 21:15-22

황돈형 협동목사(서울중앙신학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신앙은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신앙은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말은 신앙이 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임의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고, 수학적 원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듯이, 질서 가운데 만드셨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질서를 이루셨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자유를 통해 보이지 않는 기준과 질서를 이루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자유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 가운데 살면서 혹시 자신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으며,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벗어나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요 14:6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 한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따라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신앙의 병이다. 마 7:21-23에는 어떤 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는 일이 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는 요 12:44-50까지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뒤,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의 뜻을 거역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에 실패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신다. 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②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③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따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세 질문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를 따르라” 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으로 신앙의 진실한 모습을 이루어야 하겠다.